

심리·치료·생명·생태 연구 주목

· 대회 이모저모 ·

논문 번역·통역 제대로 안돼

○... 이번 결집대회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운영진 측면과 논문 자료집 번역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외국인 학자들에게 숙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캐나다 위니펙대학의 알버트 윌터 교수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논문 내용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주제를 잡아 총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윌터 교수는 "논문 번역은 물론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표 자체가 무의미했던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배아줄기세포 개념 놓고 설전

○...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과 집중이 모아진 분야는 역시 응용불교분야였다. 때문에 제12분과인 심리·치료와 제13분과인 생명·생태 발표장에서는 스님과 대학원생, 일반인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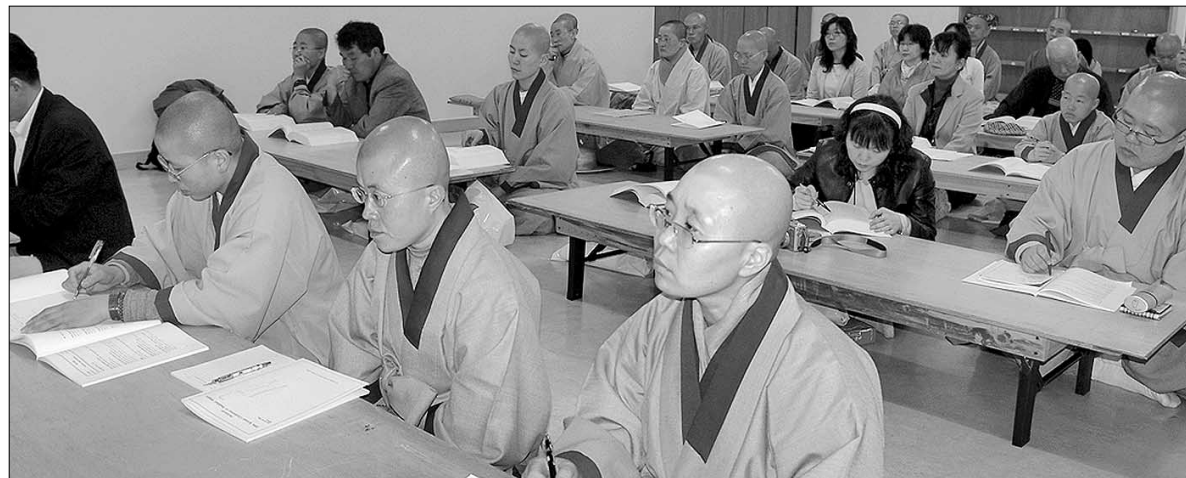
특히 생명·생태에 관한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생명 조작에 관한 영기적 관점'이란 논문 발표가 있었던 제13분과에는 스님 및 학자, 일반인 30여 명이 몰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간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놓고 참여자들 사이에 열린 설전(舌戰)이 오가기도 했다.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최재성씨(30·전북 전주시)는 "우희종 교수의 논문 발표와 이번 토론을 들으며 생명공학에 대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학자들 한국문화체험

○... 결집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학자 60여명은 2박 3일 간 해인사에 머물며 한국의 불교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전야제 때 공연된 승무와 판소리 공연, 아침 예불 참석, 공양, 경주 불국사 등 '한국 전통 악기인 아쟁과 가야금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꼭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자비수관의 한 측면인 심신치료' '치료자의 덕목으로서 사무량심' 등 총 10여편의 논문이 소개된 제12분과 심리·치료 발표장 모습.

'세계 불교학자들의 축제' '승가와 재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무차대회'라는 수식어가 붙는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이하 결집대회)가 4월 23일 한국불교학회장 이광재 교수를 차기 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이틀간(4월 22-23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불교의 문화·교리·역사 수호와 현대적 창조'라는 대전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 130여명이 논문을 발표했고 이중 외국 불교학자들의 논문도 60여 편에 달했다. 참가 국가는 7개국으로 일본이 3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0여명(홍콩 포함), 미국, 캐나다, 인도, 태국, 스리랑카에서 온 학자들도 20여명이 참가했다.

13개 분과별 논문발표 주제를 살펴보면 △승가교육 △실천수행 △초기·부파 △중국불교 △일본불교 △티베트불교 △화엄·전대 △남아시아 불교 △인도 대승불교 △한국불교 △선불교 △불

외국 학자 논문 60편 등 총 130여편 발표 학제간 연구로 응용 불교학 외연 확장

교문화 △서지·어문 △생명·생태 △심리·치료 등 불교와 관련된 거의 전 분야를 다뤘다.

결집대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 및 관련 연구자의 거의 절반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자 분포 현황과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동일시와 동체자비의 유사성

그렇다면 이번 결집대회에서는 어떤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가장 큰 반향과 관심이 쏠렸던 분과는 어떤 분야였을까?

1회 대회 때는 원호 사상이 하나의 분

과로 발표되고 2회 대회에서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와 한·일 불교 교류사에 대한 논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응용불교(심리·치료, 생명·생태 분과)에 대한 논문이 늘어났다. 이는 불교학이 학제간연구로 외연을 넓히고, 학문적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분야가 학문 영역에 포함되는 경향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생명·생태를 주제로 한 제13분과 발표장에서 순천대 안옥선 교수는 네스의 심층생태학에서의 동일시와 불교의 동체자비의 유사성을 △전일론적 존재론과 영기론 △사리아타의 원리 등을 근거로 연구한 논문 '심층생태학의 동일시



안옥선 교수



우희종 교수



가스코마즈모토 교수



김재성 교수

와 동체자비'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심층생태학에서의 자아실현과 불교에서의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동일시와 동체자비의 실질을 떠나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며 "동일시와 동체자비를 통해서 전일론적 존재론과 영기라는 존재실상에 합치되는 삶을 구현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최고의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과학 총체적 접근 필요성 제기

이러한 발표에서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생명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 불교적 지혜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우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항집 전환으로 만들어진 돼지 장기가 사람에게 성공적

으로 이식되었을 경우 사람 체내에 이식된 돼지 장기에 자연 감염될 수 있는 돼지 고유의 치명적 병원체는 미생물 특유의 환경적응력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적응해 전혀 새로운 질병 병원체로 변이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우 교수는 "전 생명체의 관계를 인드라망으로 비유하면서 모든 것이 상의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환원론에 바탕을 둔 현대과학에 대하여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더불어 앞으로 과학의 연구방향 설정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치료로서의 불교'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김재성 교수는 '현대심리치료법과 불교의 1인칭적인 접근법'을 통해 계·정·혜 삼학을 닦는 자기치유법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불교심리학의 한계인 관계론적 자기치유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치유 능력이 부족한 현대심리치료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상담가나 의사들은 불교심리학의 지혜를 통해서 자아와 근본적인 지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스킨십 접촉한 노인 심리치료

일본 무사시노대학 가스코 마즈모토 교수는 '불교의 성(性)에서 본 노년기의 성과 그 존재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대승장엄경론>의 '중성품'의 내용을 인용해 불교에서 금지시키는 성적 욕망과 심리학에서의 스킨십을 접목시킨 고령기 심리치료법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했다. 가스코 교수는 "예를 들어 고령의 노인 과 투병중인 노인, 치매노인의 경우 손을 잡아주거나 얼굴을 어루만져주는 행위 등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듯이 인간의 성을 그 사람의 본질의 일부로 가정할 경우, 성적 행위 등을 통해서도 노년기에 겪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운문사 중강 명법 스님의 '북송시대 문의 부활과 과제'와 일본 동경대 마에가와 켄이치 연구원의 '설화로 본 명혜 스님의 연구' 홍콩대 랑가마 찬다위나팔라 연구원의 '고대 스리랑카 테라바다 종파에 대한 연구' 등의 신진 불교학자들의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글·사진/해인사·노병철 기자

화제의 인물



샘 베미쉬
계명대 초빙교수

"세계 각국에 한국불교 알릴 터"

"'느낌과 감명'이 있는 포교로 벨기에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 출신으로 계명대에서 한국선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샘 베미쉬 교수.

베미쉬 교수가 한국불교에 심취하게 된 계기는 15년 전 중국 구화산을 여행하면서 '중생을 제도한 뒤에야 보살도를 이루고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지장대

원에 큰 감명을 받고 한국불교에 심취하게 됐다.

그 후 그는 런던대학교와 보스턴대학에서 '고려시대 불교'를 전공했고 '고려시대 불교제도와 사상'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술과 체육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교 미술과 선수행을 통해 지구촌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계명대에서 한국선불교와 한국문화, 문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의 꿈은 한국불교를 많은 외국인에게 알리는 것. 이번 일환으로 그는 현재 위빠사나와 탱화 배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도반인 캐나다 위니펙대학 알버트 윌터 교수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 참가한 베미쉬 교수는 '고려시대 불교의 재고찰'이란 논문을 발표해 외국 불교학자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베미쉬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세계 불교학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재와 재와 100년 새로운 100년의 두드림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민족의 어둠을 밝힌 동국100년! 세계의 미래를 밝혀갈 동국100년!

2006년 5월 8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민족의 등불이 되어 온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동국은 새로운 100년의 꿈도 등불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더 환한 등불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혜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www.dongguk.edu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인간이 바라는 부처님 바램!

최고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법당
생산에서 ↔ 완공까지

생 산 품 목
서가래, 부연, 초익공, 이익공, 계자각, 외삼포작, 외삼포/내외포작, 외오포, 내칠포작 등 법당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최고의 작품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스님께서 직접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국 불 교 건 축 공 예
서울 중랑구 망우 2동 467-20
대표전화 : 02)494-4890~1
상담전화 : 011-9228-6814